

13기 필리핀팀 2015년 5월 활동보고서



찬수 * JUAN

지원 * JUANA

수정 * CONCHITA

준성 * SANTIAGO

목차



- > 5월 활동달력
- > 우리 활동
 - 덤프사이트
 - 푸가로
 - 살라핑가오
- > 라온아띠 7개국 코디네이터 미팅
- > 중간평가
- > 우리생활
- > 에세이

2015. 0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SALAPINGAO

3

4

DUMPSITE

5

DUMPSITE

6

REST DAY

7

PUGARO

8

PUGARO

9

REST DAY

10

REST DAY

11

DUMPSITE

12

DUMPSITE
International
Coodinators
Meeting

13

International
Coodinators
Meeting
-DUMPSITE
-SANTACRUZ

14

International
Coodinators
Meeting
- HUNDRED
ISLAND

15

International
Coodinators
Meeting

16

REST DAY

17

REST DAY

18

PUGARO

19

DUMPSITE

20

SALAPINGAO

21

PUGARO

22

PUGARO

23

SALAPINGAO

24

PUGARO

25

DUMPSITE

26

Evaluation
-SANTACRUZ

27

Evaluation
-DUMPSITE

28

Evaluation
-PUGARO
-SALAPINGAO

29

REST DAY

30

DUMPSITE
(POTLOCK)

우리 활동

덤프사이트





몸놀이를 신나게!!

클래스가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놀이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노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무궁화 꽃놀이, 치킨치킨 덕, 인간놀이공원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에 아띠들도 저절로 흥이 나는 시간이었다.

재미있는 아트수업!

첫 번째 아트수업으로 모자이크를 선택하였다. 풀과 종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료도 나누어 사용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으며 아이들이 너무나도 집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욱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한 재료들을 클래스에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 재미있는 ~ 영어수업

알파벳을 알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어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아띠들 역시 따갈로그어 단어를 아이들을 통해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를 조금 아는 친구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영어수업~

알파벳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였다.

알파벳 노래와 율동 그리고 알파벳 색칠 공부를 통하여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증진 시킬수 있었다.





이곳은 덤프사이트 입니다~

이번 달은 코디네이터 미팅과 중간평가 총 2번의 외부 분들에게 덤프사이트를 소개 할 기회가 있었다.

코디네이터 미팅 때에는 아띠클라세를, 중간평가 때는 닭죽과 개학을 맞아 공책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외부사람들에게 놀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방문 전 하우스 투 하우스를 진행하며 미리 홍보하고 외부인 들과 함께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을 소개하였다.

함께 먹고 즐기는 POTLUCK

하우스 투 하우스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5월 포트락 파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아도보,밥,화채를 준비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전히 POTLUCK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띠들도 만족했던 활동이었다.



SANTIAGO

생일 날 로스비아에게 뽀뽀를 받았다.
그 어떤 값진 선물보다 너무너무너무 기뻐다. 1억
을 쥐도 안 바꾼다(준다는 사람이 없다).

물론 몇 주가 지난 지금 로스비아는 다시 나를 처
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피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하
다.

시간이 갈수록 정이 들고 사람과 환경에 익숙해지
긴 하였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덤프사이트는 사
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다.

사이트를 갈 때 나의 마음 가짐이 단순하지 않았는
지 나만 생각 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웃음과 지
역주민들의 걸모습만 보고 단순하게 “그들은 행복
하다, 살만하다” 라고 단정짓지 않았는지 라는 반
성의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지역주민과 가혹한 환경에 익숙해졌다,
친근해졌다고 표현한 말들이 후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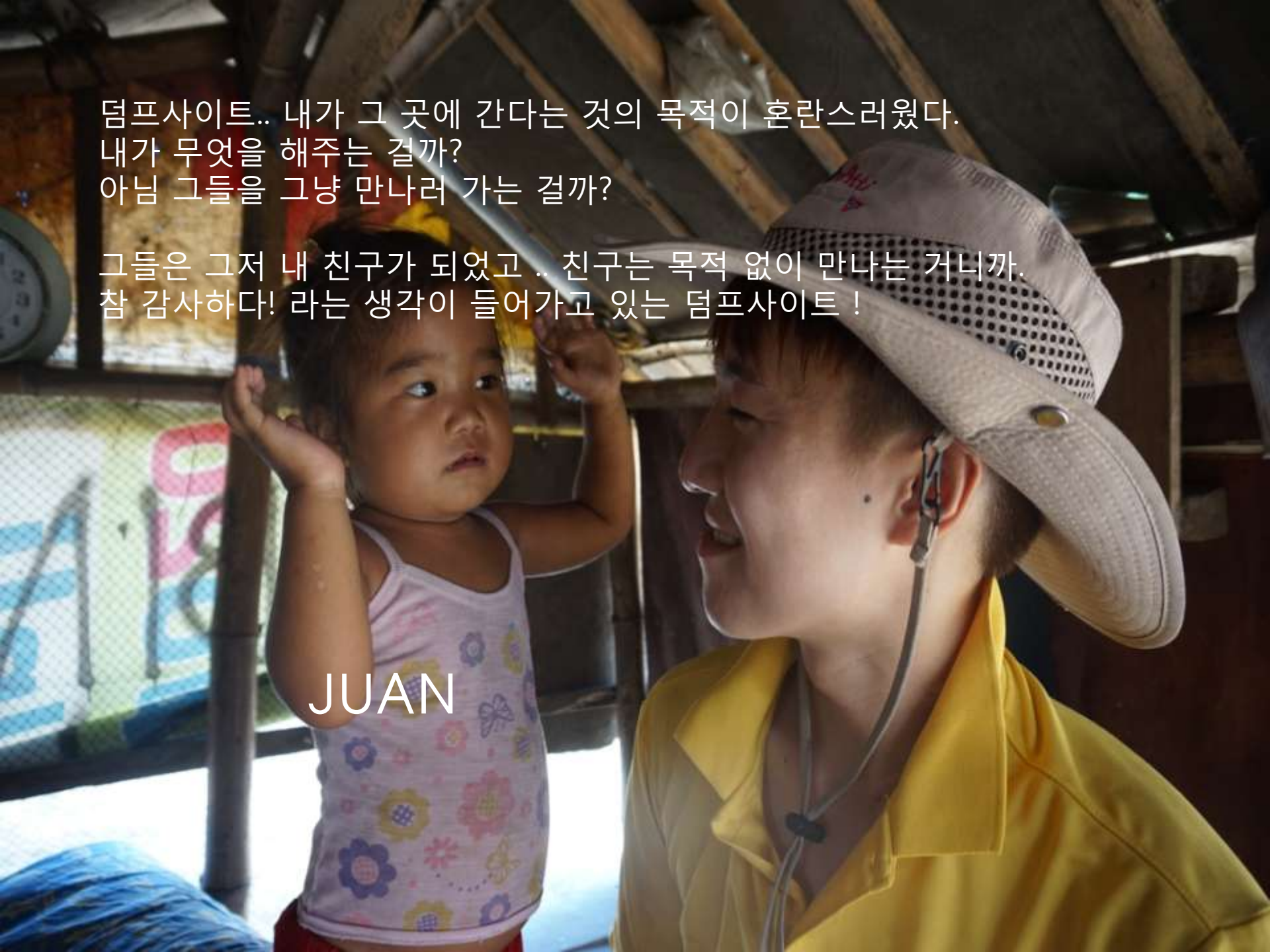
사이트 활동이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덤프사이트
만큼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싶다.



덤프사이트.. 내가 그 곳에 간다는 것의 목적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해주는 걸까?
아님 그들을 그냥 만나러 가는 걸까?

그들은 그저 내 친구가 되었고 .. 친구는 목적 없이 만나는 거니까.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덤프사이트 !

JUAN



7개국 코디를 만나고 각국 팀원의 안부를 듣고
각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팡가시난에 오신 코디 분들께 라온아띠의
활동지인 덤프사이트를 소개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외로웠다.

덤프사이트라는 곳은 나 또한 놀라운 환경이었고
그 속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사는 것에 새롭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충분히 만나고 계시고 만나신 분들이
인사도 없이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건지 말도 없이 사진기를
꺼내 묻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얼굴 가까이 사진기를 들이대고
찍었다.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적어도 자신을 소개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원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이들도 우리처럼 밥해먹고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일하는 곳이 쓰레기장이고 사는 곳도
이곳이라고. 무엇이 잘못된 일이냐고.

덤프사이트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놀라지 않고 사진을 찍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을 알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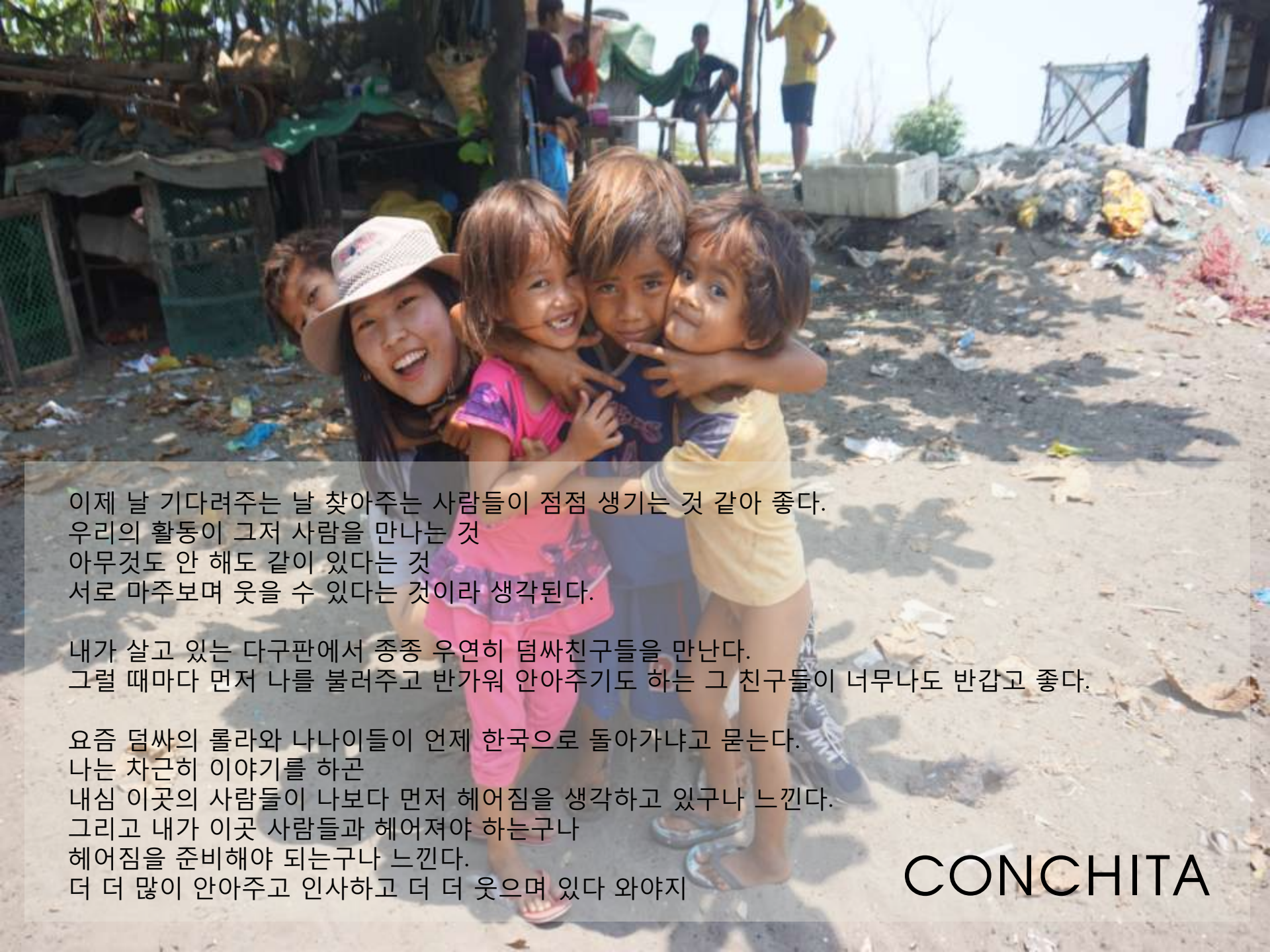
덤프사이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3달이 지났지만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주민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차가워지는 내 모습도 싫고
지금처럼 뜨겁기 만한 나도 밉다.**

Juana





이제 날 기다려주는 날 찾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 좋다.
우리의 활동이 그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이 있다는 것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내가 살고 있는 다구판에서 종종 우연히 덤싸친구들을 만난다.
그럴 때마다 먼저 나를 불러주고 반가워 안아주기도 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좋다.

요즘 덤싸의 롤라와 나나이들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냐고 묻는다.
나는 차근히 이야기를 하곤
내심 이곳의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구나 느낀다.
그리고 내가 이곳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느낀다.
더 더 많이 안아주고 인사하고 더 더 웃으며 있다 와야지

CONCHITA

살라핑가오



마을 청소 활동

4월 중에 실시한 '마을 알기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마을 청년과 함께 줍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후 바로 쓰레기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버리는 주민들을 보고 슬펐지만 앞으로 환경 캠페인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개학 맞이 학교청소!

개학을 맞아 필리핀 전역의 학교들이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였고, 아띠들도 학교청소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화단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활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였다.





캠페인활동

3,4월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했지만 청년 외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아띠들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주민들과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작정 다가가 말을 걸고 팀 소개를 한 뒤 350PPM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지역 청년들의 도움과 주민 분들이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계획

남은 한달 동안 주로 캠페인을 하며 라온아띠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비록 팀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 현지 청년들과 함께 350캠페인을 준비하며 끝맺음을 잘 지을 생각이다.





캠페인활동

3,4월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했지만 청년 외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아띠들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주민들과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작정 다가가 말을 걸고 팀 소개를 한 뒤 350PPM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지역 청년들의 도움과 주민 분들이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계획

남은 한달 동안 주로 캠페인을 하며 라온아띠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비록 팀에 대한 홍보가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남은 기간 현지 청년들과 함께 350캠페인을 준비하며 끝맺음을 잘 지을 생각이다.



푸카로





개학 맞이 대청소(공연)

푸가로에 위치한 Intergrated school 역시 개학을 맞아 대청소가 시작 되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부터 도움을 요청 받아 아띠들도 역시 간단한 K-POP과 함께 청소를 도와주었다. 청소전 지역주민들에게 준비한 춤을 보여준 후 라온아띠와 350 캠페인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춤을 준비한 팀이 오직 라온아띠 한 팀이어서 민망하고 당황하긴 하였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팀을 알린 거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다!

그린 하우스를 짓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알고보니 그린 하우스 장소로 쓰이는 곳이 학교 매립지였던 것이었다. 아띠들은 잠시 당황하였지만, 강렬한 태양 아래서 수년간 매립되었던 쓰레기를 파내기 시작하였고 현재 쓰레기 제거를 마친 뒤 평탄화 작업을 마치고 그린하우스의 기본골격을 모두 완성 시킨 상태이다. 6월 한달 간 퇴비를 깔고 모종을 심을 계획에 있다.

향후 푸가로 계획

살라핑가오와 마찬가지로 푸가로 에서도 지역 주민과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남은 한달 간 그린 하우스에 쓰일 모종을 나누어 주며 350 캠페인을 병행할 생각이다.

그린 하우스의 모종들은 13기 아띠 들이 떠난 후 다음 기수가 오기 전까지 학교 측의 정원사 분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였다.



Inter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RoomAtti
International Coordinators Meeting
Thank you
Network Group of IAPAC of Korea



라운아띠 코디네이터 미팅

일년에 한번 있는 라운아띠
코디네이터 미팅이
이 곳 팡가시난에서
5월 12일~5월 16일 5일 동안 있었다.



중간(격려)평가



중간평가를 통해,
2~3개월 간의
활동을 팀원들과
함께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생활



달테마



5월 달테마는 "마사랍"

맛있다는 뜻의 마사랍(masalap)은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회의도 하고 우리들만의 추억을 좀 더 만들어 보자는 찬수아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무더위에 지쳐 할로할로를 먹으러 차오킹에 갔던 것이 5월 달테마의 시작이었다. 생각보다 5월 한 달 동안에 코디네이터 미팅, 중간평가 등 바쁘게 지나 오면서 5월 달테마를 많이 챙기지 못했지만 달테마를 계기로 항상 집에서 세끼 밥해먹던 우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다구판에 어떤 맛있는 곳들이 있을지 더 살펴보게 되었고 가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준성아띠의 6월 달테마는 "사람책"이다. 가장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할 우리 팀원들간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책은 한 사람씩 각 아띠와 두 번의 만남을 가진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사람책이 되고 다른 한 번은 사람책을 듣게 되는 씩으로 진행되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 달테마를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5월 생일



Happy Birthday

준성 · 지원 · 린

라운아띠멤버 중 가장 처음으로 생일을 맞은 준성아띠는 수영장에서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준성아띠의 눈을 가리고 수영장까지 겁주는 장난을 치고 얼음물 세례와 수영장에 빠뜨리는 등의 장난을 치며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라운아띠 멤버들은 생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챙겨주려 했다.

지원아띠의 생일은 몰래카메라를 계획했다.

우리들의 코디인 김이 다른 지역 YMCA로 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들은 김 작별 선물을 준비하자고 했고 결국 지원아띠만 준비했고, 지원아띠의 생일날 김과 작별인사 후 한참 뒤 생일파티를 시작했고 어김없이 눈을 가리고 오피스를 향했고 얼음물세례와 동시에 눈앞에 김이 나타나 Kangko labat 깡꼐라뻬을 외치며 생일파티를 했다.

지원아띠와 생일이 같은 린이 바기오에서 2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다. 생일 당일에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라운아띠 멤버들은 모두 놀랐지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선물을 주며 같이 생일축하해주었다.

아띠들의 변신



헤어 변신을 꿈꾼 아띠들

가장 먼저 변신한 아띠는 준성아띠이다.
4월 가장 많이 들은 "오빠 머리 좀 잘라~!"라는 말을 반영했는지 5월이 되자마자 머리를 자르고 5월 내내 자신의 잘생김에 심취해했다.

준성아띠에 영향을 받은 찬수아띠는 5월 두 차례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는 등 다양한 변신을 하며 변화를 주었다. 종종 셀프로 머리를 자르기도 하며 가장 멋 부릴 줄 아는 아띠다.

수정아띠는 망설이다 5월 마지막이 되어서야 치렁치렁했던 검은 긴 머리를 한층 밝게 염색하고 머리를 잘랐다. 우기에 들어선 필리핀은 오후가 되면 몇 시간 동안 폭풍 같은 비가 내리는데 사실 이 비를 피해 머리했다는 건 비밀!

지원아띠는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염색약으로 종종 홀로 셀프염색을 일삼았다. 현재는 이곳에서 염색약을 알아보고 있고 수정아띠가 염색하는 동안 미용실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나중을 기약하고 있다.

아띠들의 변신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GOLD EIGHT SALON으로 아띠들의 단골 미용실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곳을 애용할 아띠들이다.

에세이



CONCHITA

솔직했나? 아니면 더 숨어버렸나?

나중에 내가 라온아피를 떠올렸을 때 내게 힘이 되는 기억이고 싶다.

어느 날 어김없이 나랑 장난치던 그 친구가 나에게 질문하나 해도 되냐고 물었다.

진지한 질문일 수 있다고 괜찮냐고 물으며 한 질문들

라온아띠에 왜 지원했어?, 지금 무슨 목적으로 라온아띠를 하고 있어?

이 두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질문을 하겠다던 그 친구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 나를 당황하게 했다.

국내 훈련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지원동기가 뭐냐는 질문에 조금은 기계적이게 항상 답해오던 답을 했다.

뭔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처음들은 질문 목적이 뭐야? 나는 의무감에 이것저것 말했다.

종종 아니 점점 나에게 묻는 질문들에 진심으로 답을 못하고 있다.

전부터 이곳에서 자주 듣는 두 질문

무엇을 배웠어? 무엇을 느꼈어? 이 질문들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 답이 그 질문의 진심 어린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떠오르지 않아 힘들다.

내게 질문한 그 친구와 우연찮게 했던 대화는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봉사라고 말하던 그 친구에게 관계에 대해 배우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했다.

또 마침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 날 나를 웃음짓게 했다.

그 친구가 나는 종종 로카로카(미쳤다)하다고 했다.

황당해하며 내가 왜 미쳤어? 라며 물으니

종종 내가 아무 이유없이 잘 웃는다고 답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웃는 내 모습이 떠올라 웃기기도 하고 좋았다.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서

웃는 내 모습이 기억된다는 생각에 좋았다.

잘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린 기분이다.

내가 잘모르겠다고 답하는 질문들에 답은 네가 알고 있다는 간사님의 말.
근데 아직은..

간사님의 말대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도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전과는 다르게 내가 지쳤다는 게 느껴져서
그 지침이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내게
언제나 나에게 활력소가 되어주는 활동지들
활동지에 갈 때면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았다.
그 곳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무기력한 내가 아니라고 생각됐다.

지쳐 갈수록 나에게 더욱 집중하려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더욱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노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한 말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3월에 나는 피할 수 없는 이곳에서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었는데
어느새 잊어버리고 숨어버린걸까
다시 한 번 관계에 관해 더 고민하고 집중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간사님이 주고 간 과제...
아직도 못 찾았지만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노력해봐야겠다.

5월은 그냥 그 순간 순간의 감정은 있지만 점점 내 감정을 잃어가고 무덤덤해지는 것 같았다.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나를 잃어간다는 것이 나를 알아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중간평가 때 받게 된

출국 전 내가 썼던 편지 그리고 내가 처음 라온아띠를 지원했을 때 적었던 내 지원서.

지원서에는 내가 고민하며 적었던 진심이 담겨있었고 내가 잊었던 것들이 적혀있었다.

편지에는 내가 잊지 말고 고민해보라고 뼈곡히 적어놨던 고민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를 응원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의 글이었다.

분명 그 때와는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적은 그 편지에는 지금 나를 너무 잘 아는 듯한 몇몇 문장들이 나를 놀래켰고,
나를 웃음짓게 했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지속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같이 느껴졌다.

편지속 내가 한 수 많은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떠올렸고,

내가 한 질문에 답하는게 참 어려웠다.

에세이를 쓰는 지금!

더이상 5월내내 지쳐있던 내가 아니라 좋다.

물론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어렵지만...

편지 속 "팔자주름이 깊어질 정도로 네가 더 많이 앞으로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처럼

더 많이 웃으려 노력하며 지내야겠다.



Juana



좀 더 향기롭고 싶다.
내가 머무르는 공간 뿐 아니라 내 생각이 머무른 자리도:)

늘 풍성한 향기가 가득한 삶은 아니지만 오늘의 향기와
기분만큼은 간직해보려고 한다.

한바탕 폭풍우처럼 몰아치듯 왔던 중간격려평가 이후 행복하냐고. 무엇이 행복하냐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었다. 지금 행복하냐는 말에 행복을 찾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수많은 감정에 행복이란 말을 붙이고 그것 또한 행복이라고. 그 의미를 찾고 있다고.

무엇이 행복한가? 라는 말에 한국에서 바로 앞에만 있는 것에 아등바등 숨 쪼이듯 생활했던 내가 아니라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고민하고 생각 없이 살아보는 것. 나를 집중해보는 것. 무언가에 떨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지금 느끼는 행복을 한국에서 그때 참. 행복했지 라는 추억팔이가 아닌 그 마음을 간직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고, 아파하고 힘들 때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하게 웃는 날이 있고. 힘들고 약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 없고 무너져가는 심정을 다시 돌리긴 힘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닌지.,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다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

좀 더 향기롭고 싶다.

내가 머무르는 공간 뿐 아니라 내 생각이 머무른 자리도:)

늘 풍성한 향기가 가득한 삶은 아니지만 오늘의 향기와 기분만큼은 간직해보려고 한다.



JUAN



즐기고 싶었는데.. 왜?

처음으로 내 생애 이렇게 5개월 동안..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도전이었고 기대였다. 한국에서의 고민들 한국의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들, 그리고 나를 압박하는 무언가가 나를 지치게도 힘들게도 만들었다.

그런데 왜! 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걸까?

그래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천안시 쌍용동 대학생 박찬수의 생활 vs
판가시난 다구판에 있는 라온아띠 박찬수의 생활

무엇이 그를 고민에 빠지게 했을까요?





박찬수의 대학생활

오전 8시 기상을 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오전 9시 수업을 들어갑니다.

오후 12시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1시 수업을 들어갑니다.

오후 7시 집에 귀가 & 친구들과 만남

박찬수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고민

하.. 학점 망하면 어떻게 하지?

취업은.. 선배들은 좋은곳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갈수 있을까?

하.. 답답하다



박찬수의 라온아띠의 생활

오전 8시 혹은 8시 반 기상
오전 9시 활동지로 이동
오후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오후 3시 휴식
오후 3시 혹은 4시 언어수업
오후 5시 저녁식사
오후 6시~자기전까지
회의 혹은 팀원들끼리 놀기.
혹은 자유롭게 놀기

박찬수의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의 고민

이 친구 괜찮은걸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걸까?

화났나?

아.. 화난다. 등등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곳의 생활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는 이유가 달랐다. 수업을 들을 때도 교수님을 알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론을 알기 위해 모인 만남이었다. 제대로 한번도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 듣거나 물어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취업, 학점, 그리고 돈... 이었다.

그래서 그 고민들로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묻혀졌던 것 같다.

팡가시난에서..

이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큰 목적없이 천천히 만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지 못했던 깊은"관계"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났다.

5월의 일기 속에 나는 관계 때문에 지치고.. 행복했고 .. 또 다시 지쳤다.

하지만 그 일기 속에는 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필요로 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 속에 살고 싶다. 혼자는 싫다.

그래서 더욱 깊게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하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지금의 감정들이 나의 인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왕 재밋당~~

SANTIAGO



약 3달간 별 고민 없이 살았다.

그리고 중간평가.

지난 몇 달간의 생활에 대해 간사님들에게 무용담을 늘어 놓듯이 뱉어 낸 뒤 내 마음이 속 시원 하게 풀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간사님이 가시자마자 내가 풀어 냈던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내 마음을 들썩시키고 흔들었다.

내가 맞을 거라는 핑계로 주위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순간을 즐기겠다는 핑계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려 한 건 아닐까
문제의 근원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 것은 아닐까
너무 이기적으로 내 재미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냥 건방졌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지금껏 너무 건방졌다 내 자신을 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동 하고 있었던 것 같다.

5월 말 나는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는 바람에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힘들다. 심지어 초심을 생각하려 하는데 초심조차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모든걸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 했던 것은 아닐까...?

5월 말부터 지금 에세이를 쓰는 6월 초 까지 지금껏 자신만만 했던 내 자신에 대해 물음표가 생겨 나기 시작했다.

남은 기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를 찾다 가야지.

SALAMAT PO ♡

